

# 제조혁신·벤처국가 도약 위해 '민간 역량' 활용한다

중기부-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스마트공장 3만개 협업모델 확산 R&D 선정 권한까지 민간에 넘겨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제조 혁신, 창업·벤처국가 도약을 위해 올해엔 기업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리기로 확정한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포스코 등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공장 협업모델을 더욱 확산시켜나가기로 하면서다.

연구개발(R&D) 정책도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R&D 지원 대상 선정 권한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벤처·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풍부한 민간이 주도로 참여하고 정부는 후원하는 방식 역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한 취재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하는 '2019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경우 민간지원 방식과 정부지원 방식이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니 민간지원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지원하는 것에 더해 정부가 매칭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왔고, 올해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한발짝 물러나 시장이 잘 돌아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제조혁신과 생산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성 향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스마트공장을 1순위로 꼽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2만개를 목표로 했던 스마트공장을 3만개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330억원에서 올해엔 2.6배 많은 3428억원까지 증액했다. 기업당 지원금액 역시 기존의 5000만~1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삼성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기 위해 각각 100억원을 출연키로 한 가운데 현대차(58억원), 한국표준협회(50억원), 포스코(20억원), 삼성디스플레이(10억원) 등도 올해 중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들 외에 LG전자, 삼성SDS 등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학사, 대학원 등 스마트공장 전문 인력도 10만명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R&D 정책도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민간이 R&D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이들에게 R&D 자금을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관련 사업방식은 올해 중에 구체화 해 내년 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R&D 선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자 '개방형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아울러 대기업이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R&D 지원 역시 다양하게 이뤄지고 성과도 적지 않은 만큼 민간합동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정부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사내벤처에 대한 지원 확대도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에 정부가 당근을 주는 것이다.

창업·벤처국가 실현도 '민간 주도-정부 후원' 방식을 통해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대표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도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자하고 민간의 추가 투자를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 이를 통해 총 4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지회사와 연계해 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는 등 대학·연구소발 창업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

2016년 기준으로 314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지난해 기준으로 564만명 수준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생력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올

비전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
방향	민간주도-정부 후원 방식으로 정책 개편 중소 제조업 혁신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치원이 다르게 육성
역점 과제	스마트 제조혁신 등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제고 벤처열기 가속화를 통한 혁신 창업·벤처국가 실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혁신을 뒷받침 상생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가속화
쟁점 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영역 보호
신규 과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생태계 조성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해엔 2배가 넘는 4조원으로 확대한다. '결제수수료0%'를 지향하는 제로페이도 안착시킨다.

홍 장관은 "나 스스로도 제로페이가 붙어 있는 가게를 갈 때마다 많이 쓰고 있다. 제로페이가 정착되면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로페이가 생기면서 경쟁 신용카

드사들도 새로운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내놓은 등 금융혁신도 앞당기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확산과 안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로페이에 교통결제 및 여신기능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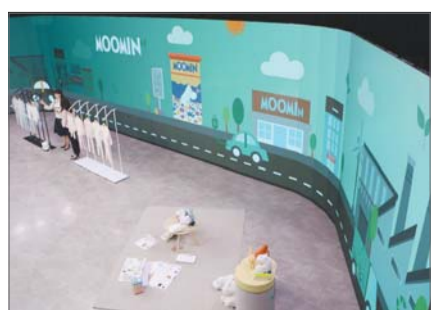
## 공영홈쇼핑 스튜디오·콘텐츠 새단장

공영홈쇼핑은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영상을 위해 스튜디오를 새로 단장하는 등 이미지 연출과 공간 활용 극대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타 홈쇼핑의 층고가 10m 이상이고, 3~5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하는데 반해 공영홈쇼핑이 운영 중인 A·B 스튜디오의 층고는 모두 6m로 낮아 공간활용과 다양한 연출에 제약이 많았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7월 방송 관련 내부 직원과 광고, 영상 분야 권위자인 강한영 감독 등 외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비주얼TF팀을 구성해 스튜디오 리뉴얼 뿐만 아니라 방송 콘텐츠와 관련된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B 스튜디오의 배경을 가로 16m, 세로 3.5m의 고해상도 LED 미디어월을 도입한 것이다. 타 홈쇼핑의 미디어월이 세트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다면 공영홈쇼핑은 전체 방송의 비주얼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거대한 미디어 디자인 세트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이 새로 단장한 B 스튜디오 미디어월.

## '신세계 식구 1년' 까사미아, 매장 100곳까지 몸집 확대

신세계 인프라 활용 시너지 극대화 3월 '신혼의 완성' 특별행사도 진행

지난해 3월 신세계그룹 품에 안긴 까사미아가 조직정비를 마치고 약 14조원으로 추산되는 홈퍼니싱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올해 총 매장수를 100여 곳까지 늘리면서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를 통해서다.

기업간거래(B2B) 분야도 강화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까사미아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에 매장 20여 곳을 새로 내는 등 총 100여 곳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세계 편입 1주년을 맞아 공격적 행보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확장 일환으로 이달 말 서울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과 4월에는 서울 관악점의 문



까사미아 서울 압구정점 외관.

을 새롭게 연다.

특히 복합쇼핑몰, 아울렛,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기존 일부 매장은 지역적 특성과 상품 판매 전략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정기 임원인사에서 그룹 업무를 총괄했던 임병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또 신세계백화점의 디자인과 기획 전문

인원을 전면에 배치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꾀하기도 했다.

상품 경쟁력도 높인다.

까사미아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하이엔드 가구 '라메종'을 새로 선보이고 하반기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와의 컬래버레이션 라인을 추가로 출시해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까사미아 고객에게 신선한 변화를 체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까사미아는 신세계그룹 편입 1주년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결혼·이사 시즌에 돌입하는 때에 맞춰 '신혼의 완성'을 테마로 신혼 고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김승호 기자

## 링크웨어 전방위 영상녹화 '4채널 블랙박스' 출시

링크웨어는 전방위 영상녹화가 가능한 4채널 ALL F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메가 4채널(사진)'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나비 메가 4채널'은 최신 암바렐라 A9A 쿼드코어 CPU와 소니 이미지 센서가 탑재됐다. 차량 전후뿐 아니라 좌우

도 동행한 전 채널 FHD의 높은 영상처리 성능을 구현한다. 또한 4채널 적용을 통해 주행 중 회전교차로 진입, 차선 변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주차 중 발생하는 측면 충격 시의 상황도 사각지대 없이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야



간 영상 보정 솔루션인 '울트라나이트비전'도 탑재되어 주야간 관계 없이 선명한 화질을 상시적으로 구현하며, 4인치 IPS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주행 중 모든 채널의 영상을 운전석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기능도 지원된다.

'아이나비 QXD 메가 4채널'은 기본 패키지와 NB-IoT 통신기술 기반의 스텐다드 커넥티드 패키지로 구성된다. 기본 패키지 ▲64GB 69만9000원 ▲128GB 79만9000원이며 실시간 통신기능이 2년간 무상 지원되는 스텐다드 커넥티드 패키지는 ▲64GB 75만9000원 ▲128GB 85만9000원이다. LTE Cat.M1이 적용되는 프로 커넥티드 패키지는 2분기 내 출시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